

문헌적 고찰에 의한 백제 복식의 기원과 변천에 관한 역사적 연구

라 선 정

공주대학교 의류상품학과 강사

A Historical study of the Origin and Development Baekje Costume based on Literature Documents

Sun-Jung Ra

Lecturer, Dept. of Fashion Design & Merchandi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16. 8. 3 접수; 2016. 9. 2 수정; 2016. 9. 5 채택)

Abstract

This article has significance in that it examines origin and developments of Baekje costume based on the validity of the reference material that can be used to infer the look of Baekje costume. On the basis of literature documents in Korea and China the shapes of it are examined, and the reliability of contents recorded in the sources is lexically reviewed. Errors related with features of the Baekje costume is minimized by investigating controversial issues in terms of periods and some parts which cannot be identified as the shapes of it.

The changing aspects of the Baekje costume by flow of time can be observed based on various records in the literatures. The origin of it can be found in records regarding the costumes of Mahan and Buyeo. Baekje inherited the separate-type of costume structure from before the period of it, and possessed superior weaving technology. In the 3th century, the Baekje costume seemed to be established, and gradually developed from 4th to 5th century. As it continued to be developed, its frame was accomplished at the late 6th century. The shapes of it appeared to be further elaborated, specified, and therefore systematized in the 7th century.

Key Words: Baekje costume(백제복식), Literature documents(문헌기록), Errors(과오), Origin and development(기원과 발전), Aspects of change(변화양상)

I. 서론

복식은 인간이 생활하는 자연 환경이나 사회 환경 등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생활양식과 신념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투사체이자 전달 매체이다. 특히 고대복식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와 지역에 관련된 문헌자료와 물질자료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먼저 문헌자료를 기준으로 고증을 하고, 이어 물질자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두 자료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검증하는 상호 보완적 연구가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적 연구에 필요한 문헌기록과 물질자

Corresponding author ; Sun-Jung Ra
Tel. +82-41-850-8428, Fax. +82-41-850-8420
E-mail : ralralra98@kongju.ac.kr

료 두 가지 모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헌과 물질자료를 동시에 연구에 활용할 기회는 제한적이다. 물질자료는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 복식의 유래·제작 방식·복식이 갖는 의미·상황에 따른 착용방법 등을 알 수 없으며, 기록은 존재하나 물질자료가 없는 경우 구체적인 형태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백제 복식의 원형 연구를 위해 필요한 문헌과 물질자료는 매우 소략한 편으로 주변국가의 자료를 바탕으로 유추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한계 상황으로 인하여 한국복식사가운데 백제 복식에 관한 연구는 다른 시대에 비하여 극히 일부분 언급되는 정도로 진행((金東旭, 1979; 金文子, 1994; 柳喜卿, 1975; 柳喜卿, 1984; 유희경·김문자, 1998; 李京子, 1983; 李如星, 1947; 이은창, 1978; 韓國文化財保護協會, 1982)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백제 복식의 연구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1995년 백

제금동대향로가 발견되고 양직공도 등 백제 복식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물질자료의 발견으로 백제 복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백제 복식 연구가 진행(권영숙·이주영, 2004; 라선정, 2010; 서미영·박춘순, 2004; 유송옥·안소영, 2000; 홍정민·김기엽, 2003; 김영재, 2000; 이진민·남윤자·조우현, 2001)되면서 백제 복식의 연구가 확대되었다. 또한 백제 복식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徐美英, 2004; 마유리, 2010; 라선정, 2016)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지속되어 온 학문적 불균형이 해소되었다.

이와 같이 백제 복식에 대한 연구가 양적·질적 향상을 이루어가고 있는 가운데 같은 상황에 대한 기록이 문헌 간 다르게 나타나는 예가 발견된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해석도 다르다. 관련 기사 가운데 百濟의 기록이 보이지 않고 대신 扶餘와 韓 등이 수록되어 있거나, 후대의 인식

〈표 1〉 『三國史記』에 기록된 백제 복식 관련 기사

출 처	내 용	
23 百濟本紀 1 溫祚王 38年	原文	三月發使勸農桑
	國譯	3월에 사신을 보내 농업과 양잠업을 권장했다.
24 百濟本紀 2 古爾王 27年	原文	二月下令六品已上服紫以銀花飾冠十一品已上服緋十六品已上服青
	國譯	2월, 6품 이상은 자색옷을 입고 은꽃으로 관을 장식하고, 11품 이상은 비색을 입으며, 16품 이상은 청색을 입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4 百濟本紀 2 古爾王 28年	原文	春正月初吉王服紫大袖袍青錦袴金花飾烏羅冠素皮帶烏韋履坐南堂聽事
	國譯	봄 정월, 왕이 자줏빛으로 된 큰 소매가 달린 포와 푸른 비단 바지를 입고, 금꽃으로 장식한 검은 비단으로 된 관을 쓰고 흰 가죽띠를 두르며, 검은 가죽신을 신고 남당에 앉아서 정사를 처리하였다.
25 百濟本紀 3 阿莘王 14年	原文	春三月 白氣自王宮西起 如匹練
	國譯	봄 3월에 흰 기운이 왕궁 서쪽에서 일어났는데 마치 비단을 펼쳐 놓은 것 같았다.
25 百濟本紀 3 腆支王 14年	原文	夏 遣使倭國 送白綿十匹
	國譯	여름, 외국에 사신을 파견하여 흰 포목 열 필을 보냈다.
25 百濟本紀 3 蓋鹵王 18年	原文	… 所獻錦布海物 …
	國譯	… 그대가 바친 비단·포와 해산물…
27 百濟本紀 5 武王 38年	原文	冬十二月遣使入唐獻鐵甲雕斧太宗優勞之賜錦袍并彩帛三千段
	國譯	겨울 12월에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철제 갑옷과 조각한 도끼를 바쳤다. 태종이 후히 위로하고 비단 도포와 채색비단 3천 단을 주었다.
32 雜誌 1 樂 百濟樂	原文	舞者二人紫大袖裙襦章甫冠皮履
	國譯	춤추는 자는 두 사람으로 자주색 큰 소매 옷과 치마, 저고리에 장보관을 쓰고 가죽신을 신었다.

가미된 작위적 서술이 보이는 부분이 존재하기도 한다. 또한 다른 시기의 문헌 기록에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신뢰성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백제 복식 자료에 대한 신뢰성 검토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백제 복식의 시기적 변화 양상을 밝혀보고자 한다. 백제 복식의 내용이 기록된 국내문헌을 비롯한 중국문헌과 백제 복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부여·마한 복식 기록을 검토하여 시기에 따라 어떠한 변화 양상이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백제 복식 연구에서 쉽게 범할 수 있는 과오를 최소화하고 물질자료를 활용한 상호보완적 연구를 더하여 보다 나은 백제 복식 연

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국내 문헌

국내 사서에서 백제 복식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것은 『三國史記』의 기록이다. 백제 복식과 관련된 기사는 百濟本紀와 雜志 百濟樂條·色服條에 수록되어 있다. 이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듯이 百濟本紀에는 7개 기사, 雜志 百濟樂條에 1개 기사, 그리고 雜志 色服條에 5개 기사가 보인다. 百濟本紀 기사에는 고이왕

출 처	내 용	
33 雜志 2 色服	原文	高句麗百濟衣服之制不可得而考今但記見於中國歷代史書者
	國譯	고구려와 백제의 의복에 대한 제도는 고찰하기가 불가하다. 지금 다만 중국 역대 사서에 보이는 것만을 기록한다.
	原文	北史云百濟衣服與高麗略同若朝拜祭祀其冠兩廂加翅戎事則不奈率已下冠飾銀花將德紫帶施德皂帶固德赤帶季德青帶對德文督皆黃帶自武督至剋虞皆白帶
	國譯	《北史》에는 “백제의 의복은 고구려와 대략 같다. 조회의 배례와 제사 때는 그 관의 양쪽에 날개를 붙인다. 그러나 군의 행사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솔 이상은 관에 은꽃을 장식하였고, 장덕은 자색 띠, 시덕은 검은 띠, 고덕은 적색 띠, 계덕은 청색 띠, 대덕과 문독은 모두 황색 띠, 무독으로부터 극우까지는 모두 백색 띠였다.”라고 이른다.
	原文	隋書云百濟自左平至將德服紫帶施德皂帶固德赤帶季德青帶對德以下皆黃帶自文督至剋虞皆白帶冠制並同唯奈率以上飾以銀花
	國譯	《隋書》에는 “백제에서는 좌평으로부터 장덕까지는 자색 띠, 시덕은 검은 띠, 고덕은 적색 띠, 계덕은 청색 띠, 대덕 이하는 모두 황색 띠, 문독으로부터 극우까지는 모두 백색 띠를 사용하였다. 관에 대한 제도는 모두 같다. 다만 나솔이상은 은꽃으로 장식하였다.”라고 이른다.
	原文	唐書云百濟其王服大袖紫袍青錦袴烏羅冠金花爲飾素皮帶烏革履官人盡緋爲衣銀花飾冠庶人不得衣緋紫
	國譯	《唐書》에는 “백제, 그 왕은 소매가 큰 자색포와 청색 비단바지를 입었으며, 검정색 나직 관모에 금꽃 장식을 하였다. 흰 가죽띠에 검은 가죽신을 신었다. 관인들은 모두 비색으로 옷을 삼고, 은꽃으로 관모에 장식하였다. 일반인들은 비색과 자색을 입지 못하였다”고 이른다.
	原文	通典云百濟其衣服男子略同於高麗婦人衣似袍而袖微大
	國譯	《通典》에는 “백제의 그 의복은 남자는 대략 고려와 동일하고, 부인의 의복은 포와 유사하지만 소매는 약간 크다”고 이른다.

27·28년 기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백제 복식에 관한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간접적인 기사에 불과하다. 雜誌 百濟樂條의 기사는 백제 춤을 추는 악인들의 의상을 전해주는 자료로서 사료 가치가 높다. 그리고 雜誌 色服條 기사는 『北史』·『隋書』·『唐書』 등 중국 사서에 실려져 있는 백제 복식에 관한 사료들을 수집·정리한 것으로 2차 사료에 불과하다. 결국 百濟本紀 고이왕 27·28년 기사가 백제 지배층의 복식문화의 일면을 살펴보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그런데 『三國史記』 百濟本紀 초기 기사들은 신뢰성 문제로 접근하는데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백제 복식의 기록 역시 『三國史記』 百濟本紀 古爾王 27·28年條에 나타나고 있어 『三國史記』 초기기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三國史記』의 초기 기사를 불신하는 근본적인 시간은 기년 문제에 대한 것이라 생각된다. 불신하는 시간은 왕명 가운데 2세기 전반부터 4세기 초반에 해당하는 蓋婁王, 肖古王, 仇首王이 4세기 중반에서 5세기 중반에 해당하는 近肖古王, 近仇首王, 近蓋婁王에 착안하여 실재했던 왕들의 이름을 소급해 설정했다는 것이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실재 왕들에게 ‘近’자를 씌워 구별했다고 이해한 것이다(津田左右吉, 1924; 今西龍, 1934). 이 경우 契王까지의 실체가 부정되기 때문에 古爾王의 기사도 불신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더불어 『三國史記』 百濟本紀의 고이왕 27년과 28년 기사와 新羅本紀 내물왕 이전의 기록을 사료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李丙燾, 1959). 또한 기년 자체에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근초고왕과 선대 초고왕의 즉위년이 같은 병오년이라는 점을 주목하여, 즉 3周甲을 소급해 인상했다고 보기도 한다(太田亮, 1928). 대체로 『三國志』 초기 기록을 분해하고 기년을 재조정해서 대체로 후대의 기사로 보는 것이다(盧重國, 1986).

반면, 초기 기사를 불신하는 입장과 달리 고고자료와 연계하여 기사 그대로 수용하는 입장도 있다. 즉, 『三國志』 동이전에 수록된 삼한의 실제 존속 연대를 추정하는 작업을 통해 『三國史記』 초기 기록을 신뢰한 것이다(金元龍, 1967; 李鐘旭, 1986).

초기 기사를 해석하는 입장과는 별개로 국가

형성의 지표로 성곽의 출현, 고분의 축조, 독자적인 토기 양식으로 보고 백제에서는 국가 형성의 시기를 고이왕 무렵으로 보며, 이 무렵이면 대외 교섭권을 장악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朴淳發, 1998). 백제의 성장에서 마한 장악의 분기점을 기리영 전투로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고이왕 때 늦어도 249년경에 연맹왕국이 형성되었다고 본다(김수태, 2001). 그렇다면 고이왕대 기사는 260년의 일이므로 기사를 신빙할 수 있다고 여겨지므로 복식 관련 기사를 따라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三國史記』에 기록된 고이왕 27·28年條 기록은 관등제정, 관직임명과 함께 의관제의 내용을 적고 있다. 고이왕 27年條에는 ‘정월에 6좌평제를 마련하고 임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16관등을 제정하였다. 2월에는 6좌평을 포함한 16관등을 3등급으로 나누어 관인의 복색과 관식을 규정하고, 3월에는 내신좌평을 임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이왕 28年條는 ‘왕의 의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2월에 5인의 좌평을 임명하였다.’고 하였다.

이의 기록으로 미루어 백제는 왕과 관인의 의관에 구분을 두었다. 특히 冠의 경우 왕은 오라관에 金花로 장식하였고, 관인은 銀花로 장식하였는데 은화식은 6품 이상의 관인만 착용한다고 기록하여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품 이상의 관인과 왕의 의관규정에 따른 구분은 관인의 복장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복색은 紫色으로 동일하며 단지 관식을 금과 은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문헌 雜誌 色服條에는 百濟本紀 고이왕대 衣冠制 제정 기사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기록이 보이고 있다.

〈표 1〉에 기록된 『三國史記』 色服條에 기사를 살펴보면 먼저 ‘백제의 색복에 관하여 고찰하기 불가하여 중국의 역대사서를 참고한다.’고 하면서 중국의 『北史』, 『隋書』, 『唐書』에 기록하고 있는 백제 복식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우선 『三國史記』 百濟本紀와 色服條의 기록과 같이 한 사서에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三國史記』 百濟本紀 고이왕조에 보이는 의관제 내용을 그대로 따라 고이왕대에 제

정·시행된 규정으로 보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색복조에 기록된 ‘백제 의복의 고찰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백제의 의관규정은 『三國史記』百濟本紀 고이왕대 제정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면 색복조에 기록된 각각의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北史』의 기록을 인용하여 ‘冠은 양측에 날개를 쫓는다.’는 내용과 함께 ‘나솔 이상의 관인은 은화관식을 사용한다.’고 전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은 『隋書』를 인용한 색복조의 기사와 동일하다. 여기에 더불어 ‘冠制並同’이라 하여 관모의 제도는 모두 같으나 나솔 이상만 은화로 장식하였다고 기록하였다. 『唐書』를 바탕으로 기록된 색복조의 내용은 관인의 의관규정과 왕의 의관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百濟本紀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한다. 결국 『三國史記』의 색복조에 중국 사서를 인용하여 기록하고 있는 백제의 의관제는 百濟本紀의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관제로서 나솔 이상은 은화식을 착용한다는 규정과 왕이 오라관에 금화식을 한다는 규정도 『三國史記』百濟本紀의 고이왕조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인용된 중국사서에서 특기되는 사실은 관인과 왕의 의관규정이 『北史』나 『隋書』가 『唐書』와는 다르게 기록되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三國史記』百濟本紀의 고이왕조에도 27년과 28년이라는 1년간의 시간차를 두고 기록되어 있지만, 인용된 중국 사서는 『北史』나 『隋書』에는 관인의 의관규정만 보일 뿐 왕의 의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반면에 『唐書』는 왕의 의관 내용도 적고 있다. 만일 『三國史記』百濟本紀의 기록대로 고이왕대에 관인과 왕의 의관 규정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고이왕대보다 훨씬 후대에 찬술된 『北史』나 『隋書』에서는 관인의 의관 내용의 기록과 함께 왕의 의관 내용이 기록되어야 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생략되어 기록되었을 여지도 배제할 수 없으며, 고이왕대 의관제 기사 역시 신뢰성 여부의 재고가 따른다.

따라서 삼국사기에 기록된 백제의 의관제를 고찰할 경우 의관제의 제정시기와 관련하여 백제본기와 색복조의 기록 가운데 보다 신뢰성 있는 내용은 백제본기보다는 색복조의 관련기사로

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복식의 내용으로 보면 삼국사기에 기록된 백제본기 고이왕대 의관제 기사는 후대에 작성된 것을 참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이왕대 기사의 오기라 단정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닌 시간적 순차성에 따라 점차 성립·발전되는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의 과정과 관련하여서는 4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국외 문헌

국외 문헌 자료에는 3세기의 『三國志』·『後漢書』·『晉書』, 4~5세기의 『魏書』, 6세기의 『梁書』·『南史』·『周書』·『北史』·『隋書』, 7세기의 『舊唐書』·『新唐書』 등의 중국 자료가 있다. 3~7세기에 걸쳐 편찬되어 국내 기사에 비해 비교적 당대의 사정을 다루고 있다. 그만큼 시기에 따른 차이점을 파악하기에 용이하고 내용이 다소 풍부하여 백제 복식의 일면을 살펴보는 데 많은 참고가 된다.

일본 자료는 『日本書紀』가 대표적이다. 『日本書紀』는 윤색된 부분이 많다는 한계점은 있으나, 백제에 대한 기록은 비교적 풍부하여 주목되는 사료이다. 특히 중국과 국내 사료에 기록되지 않은 직물 교류 기사가 있어 가치가 적지 않다. 하지만 복식의 기원, 성립, 발전 양상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본 논고와 관련하여서는 이 내용의 비중은 크지 않으므로 중국 자료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그런데 중국의 기록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백제 복식에 대한 기록이 사서에서 열전 부분에 「東夷列傳」, 「東夷傳」, 「異域列傳」條로 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 사서 편찬에 백제에 대한 기록을 남긴 목적이 애초에 오랑캐인 ‘東夷’를 살펴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東夷라는 표현에 중국의 시각인 華夷觀이 투영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즉, 중국의 입장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당대의 사실이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지만 엄밀한 사료 비판을 통해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정재운, 2007).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 外國인 백제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 치우친 시각으로 서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중국 복식과 다른 특징적인 부분

만이 부각되었거나, 가시적으로 쉽게 드러나는 부분만이 기록되었을 것을 감안해야 한다.

다음으로 『三國志』·『後漢書』·『晉書』 기록의 사료적 가치를 검토할 차례이다. 세 사서는 대략 『三國志』 東夷傳 韓條의 기록과 약간의 서술 순서에서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三國志』를 저본으로 하여 편찬된 것으로 생각된다.

『三國志』는 중국晉 太康年間(280~289년)에 편찬된 것으로 우리나라 3세기 후반경의 사정을 비교적 잘 기록한 신빙성 높은 사서로 인정되고 있다(전해중, 1980). 그런데 『三國志』 동이전에는 百濟는 설정되어 있지 않고 대신 扶餘와 韓 등이 수록되어 있다. 백제는 기록에 '先蓋馬韓之屬國 夫餘之別種'(『魏書』100 列傳 88 百濟國條 『周書』 49 列傳 41 異域上 百濟條; 『舊唐書』199 上 列傳 149 上 東夷 百濟國條; 『日本書紀』40 桓武天皇 延曆 9年 7月條; 『三國史記』 百濟本紀 始祖 溫祚王條; 『三國遺事』 南扶餘·前百濟條)이라 하여 扶餘에 기반을 둔 유이민 집단이 韓의 땅에서 건국한 伯濟國에 기반하고 있다. 또한 仇台시조 설과 함께 사비로 천도하여 국명을 南扶餘로 바꾸거나 부여씨 등의 성을 사용하는 등 부여를 잇는 부여계승의식을 드러내고 있다(정재운, 2008).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부여 문화적 속성이 일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여의 복식과 관련된 부분이 초기 백제에 어느 정도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다.

백제는 마한을 흡수하며 성장한 국가이기 때문에 마한의 유습도 백제에 자연스럽게 잔존하였을 것이다. 아무래도 생산물이나 환경 등이 그대로 이어졌으므로 마한적 요소역시 이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百濟條에서 다루고 있지 않지만 부여, 마한조도 참고할 여지는 충분하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기록의 참고가 아닌 시한별로 검토하여 참고가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중국 사료에 백제 복식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사서는 『梁書』·『南史』·『魏書』·『周書』·『北史』·『隋書』·『舊唐書』·『新唐書』 등이 있다.

『梁書』는 梁나라 시대(502~557년)의 정사로 주로 6세기대의 사실을 담고 있는 정사이다. 『梁書』에는 백제전이 설정되어 있다. 백제전은 사방의 이민족을 한데 묶어 기술한 諸夷列傳의 東

夷편에 실려 있다. 이는 역사 서술에 있어서 중국 중심의 화이관이 보다 심화되어 가는 당대의 사풍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國史編纂委員會, 1987). 백제전은 많은 부분 『三國志』와 『後漢書』 등의 내용을 답습하고 있지만 『三國志』 동이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三國志』의 저본사료인 『魏略』을 직접 참조한 경우도 있다. 이 책은 내용이 같고 서술의 순서가 거의 같은 『梁職貢圖』 백제조를 저본으로 하여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남조계 사서인 『宋書』와 『南齊書』가 대외관계사의 내용에 국한된 데 비해 『梁書』는 원류, 요서영유설, 대중관계, 왕제, 지방제도, 문화 기사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최초의 정사 백제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백제국의 출자를 마한으로 인식한 최초의 백제전이다. 대중관계의 기사는 梁代에 국한하지 않고 진, 송, 남제 때의 관계를 약술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 관계 기사는 복식, 예속, 제도, 언어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그 중 백제의 지방제도인 檐魯制, 언어나 복식에 대한 기사는 다른 정사 동이전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자적 기사로서 사료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특히 6세기 경 백제 복식의 구성과 명칭에 관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南史』는 5세기 전반에서 6세기 후반의 宋(420년)부터 陳(589년)까지 기록을 담고 있다. 백제 관련 기사는 列傳 東夷 항목에 수록되어 있는데, 『宋書』·『南齊書』·『梁書』 등 기존의 남조계통의 동이전을 답습 요약하여 독창성과 사료적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복식 관련 기사 역시 『梁書』의 내용과 거의 같다.

『魏書』는 북위시대(386~534년)의 기록으로 4~6세기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백제국조는 권 100, 열전 88권에 고구려·물길조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남조의 사서는 보통 '東夷' 등의 이름이 붙은 열전에 기록하여 이민족들에 대한 비하가 심한 데 반하여 『魏書』에 이러한 표제가 붙지 않고 바로 국명이 나오고 있어 이민족들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한 것으로 평가된다(정재운, 2007). 복식 관련 기사는 풍속을 다루고 있는 부분에 등장한다.

『周書』는 남북조시대 北周의 역사를 기록한 사서이다. 북주가 존재한 시기는 백제 위덕왕이 통치한 시기로 이의 내용은 6세기 후반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周書』는 이전 시대의

사서를 참조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실이 많이 보이고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정재운, 2007). 특히 복식과 관련해 볼 때 王服, 朝服, 喪服 등 중국 사서 가운데 가장 많은 기록을 살펴 볼 수 있어 주목된다.

『北史』와 『隋書』는 『魏書』와 『周書』의 기록을 요약·정리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國史編纂委員會, 1987). 복식 관련 기사 역시 『周書』의 내용과 비슷함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기록은 없지만 『周書』·『北史』·『隋書』에 기록된 의관제 관련 기록이나, 왕의 복식 관련 기록을 상호 비교하여 보면 비교적 정확한 자료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舊唐書』와 『新唐書』는 당의 개국부터 907년 멸망까지의 역사를 수록하고 있다. 백제에 대한 내용은 열전에 기록되어 있으며, 7세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백제의 출자·지리·생활풍속과 함께 백제 말의 대외관계와 멸망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三國史記』에 기록된 백제 의관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舊唐書』의 기록을 신뢰하면 의관제의 내용은

백제 멸망 당시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舊唐書』 이전에 쓰인 『周書』·『北史』·『隋書』 등의 문헌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살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각 사서에 기록된 의관제 내용을 분석하여 정확한 기록을 유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백제에 대한 기록은 『舊唐書』와 『新唐書』에 큰 차이가 없다. 『新唐書』가 『舊唐書』의 체제와 표현이 미흡하여 보완코자 편찬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정재운, 2007), 이 두 문헌 역시 상호 비교하면서 그 내용을 참조하면 보다 정확한 자료의 유추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중국 문헌에 기록된 부여와 마한의 기록을 바탕으로 백제 초기 복식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으며, 『梁書』의 6세기 전반 복식의 모습과 『周書』의 6세기 후반 복식의 모습, 『舊唐書』의 7세기 복식의 모습 등 백제 복식이 변화되는 모습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듯 중국 문헌은 국내 문헌에서 볼 수 없는 복식의 변화상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표 2〉 백제 초기 복식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기록

출 처		내 용	
	烏丸鮮卑東夷傳 馬韓條	原文	如戾兵衣布袍 足履革鞮
		國譯	베로 만든 도포를 입고 발에는 가죽신을 신고 다닌다.
	烏丸鮮卑東夷傳 夫餘傳	原文	在國衣向白 白衣大袂袍袴 履革鞮
		國譯	국내에 있을 때의 의복은 흰색을 숭상하여, 흰 베로 만든 큰 소매달린 도포와 바지를 입고 가죽신을 신는다.
三 國 志	魏書 30 東夷傳 韓	原文	其人性彊勇 魁頭露紒 如戾兵 衣布袍 足履革鞮
		國譯	그 사람들의 성질은 굳세고 용감하다. 머리칼을 틀어 묶고 상투를 드러내는데 마치 날카로운 兵器와 같다. 베로 만든 도포를 입고 발에는 가죽신을 신고 다닌다.
		原文	馬韓在西 其民土著 種植蠶桑 作綿布
		國譯	馬韓은(三韓 中에서) 서쪽에 위치하였다. 그 백성은 토지생활을 하고 곡식을 심으며 누에치기와 뽕나무 가꿀 줄을 알고 면포를 만들었다.
		原文	以瓔珠爲財寶 或以綴衣爲飾 或以縣頸垂耳 不以金銀錦繡爲珍
		國譯	구슬을 귀하게 여겨 옷에 꿰매어 장식하기도 하고, 목이나 귀에 달기도 하지만, 금·은과 錦·繡는 보배로 여기지 않는다.
	魏書 30 東夷傳 扶餘	原文	出國則尚繒繡錦罽 大人加狐狸狽白黑貂之裘 以金銀飾帽
		國譯	外國에 나갈 때에는 비단옷·수놓은 옷·모직옷을 즐겨 입고, 大人은 그 위에다 여우·삼괘이·원숭이·희거나 검은 담비 가죽으로 만든 갓옷을 입으며, 또 금·은으로 모자를 장식하였다.

출 처		내 용	
後漢書	85 東夷列傳 75 馬韓條	原文	馬韓人知田蠶 作絺布
		國譯	馬韓인은 곡식을 심으며 누에치기와 뽕나무 가꿀 줄을 알고 면포를 만들었다.
		原文	不貴金寶錦鬪 不知騎乘牛馬 唯重瓔珠 以綴衣爲飾 及縣頸垂耳 大率皆魁頭露紵布袍草履
		國譯	금·보배·비단·모직물 등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소와 말을 타는 법을 알지 못한다. 오직 구슬을 귀하게 여겨서 옷에 꿰매어 꾸미기도 하고 목이나 귀에 달기도 한다. 대체로 머리를 틀어 묶고 상투를 드러내 놓으며, 베로 만든 도포를 입고 풀로 만든 신발을 신는다.
晉書	東夷列傳 馬韓	原文	俗不重金銀錦鬪 而貴瓔珠 用以綴衣或飾髮垂耳 其男子科頭露紵 衣布袍履草躡
		國譯	(그 나라의) 풍속에는 금·은·비단·모직물 따위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구슬을 귀중하게 여겨서 옷에 꿰어 차기도 하고 또는 머리를 장식하거나 귀에 달기도 한다. 남자들은 머리를 틀어 묶고 상투를 드러내 놓으며, 베로 만든 도포를 입고 짚신을 신는다.
	東夷列傳 辰韓	原文	地宜五穀 俗饒蠶桑 善作縑布 服牛乘馬 其風俗可類馬韓 兵器亦與之同
		國譯	토질이 비옥하여 5곡이 잘 자라며 누에치기와 뽕나무 가꿀 줄을 알고 비단과 베를 짠다. 소나 말을 타고 다니며 혼인은 예의에 맞게 하며 길에 다니는 사람들은 길을 양보한다.
東夷列傳 扶餘	扶餘	原文	其出使 乃衣錦鬪 以金銀飾腰
		國譯	외국에 사신으로 갈 때에는 비단이나 모직물로 만든 옷을 입고, 금이나 은으로 만든 장신구로 허리를 장식한다.
		原文	其居喪 男女皆衣純白 婦人著布面衣 去玉佩 出善馬及貂納美珠 珠大如酸棗
		國譯	喪을 치르는 동안은 남자가 모두 흰 옷을 입는데, 부인은 베로 만든 면衣를 착용하며 옥으로 만든 패물은 차지 않는다. (그 나라에서는) 좋은 말과 담비·삿괘이와 좋은 구슬이 산출되는데, 그 구슬의 크기는 대추만하다.

Ⅲ. 백제 복식의 시기별 변화 양상

1. 백제 복식의 기원

백제 복식의 기원은 부여와 마한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내용은 『三國志』·『後漢書』·『晉書』에 있다. 이들 사서에 기록된 부여와 마한의 복식 관련 기록은 아래의 <표 2>로 정리될 수 있다.

위의 <표 2>는 백제의 기록이 아닌 마한과 부여의 기록이므로 직접사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리상으로 부여보다 남쪽에 위치한 백제는 보다 따뜻한 기후환경을 나타냈을 것이다. 출국할 때 狐狸狝貂와 같이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겹으로 착용한 부여의 기록을 그대로 백제 복식의 모습으로 여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물론 겨울에는 동물의 가죽으로 된 옷을 입었을 개연성은 있겠으나 기록된 바와 같이 출국할 때 겹에 또 다시 입었을 것으로 보기에 재고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부여와 마한 복식으로 기록된 내용은 백제 복식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간접사료로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부여조에는 의복구조, 의복색상, 의복재료, 신분에 따른 복식의 구별, 국내·외 복식의 구별, 장신구 등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服

으로 포와 바지를 입은 분리형 구조를 보이며 飾으로 신발과 모자를 들고 있다. 의복재료로 布나 명주나 비단, 용단, 자수 등을 사용하였고, 여우나 살쥬이, 원숭이, 족제비의 가죽을 이용한 옷도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만주대륙의 동북 평원지역에 고구려보다 앞선 시기에 농경생활을 주업으로 삼았던 부여는 목축이 성한 사회였다. 주로 모피나 모직물을 의복재료로 사용했던 부여민의 일부가 남쪽으로 이동해 건국한 백제에서도 그들과 같이 모직물을 사용한 복식이 착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나라 안에 있을 때에는 백색을 숭상하여 白布의 큰 소매로 된 포와 바지를 입었으며, 나라 밖 외국으로 나갈 때에는 두껍게 짠 비단과 수를 놓고 여러 색으로 곱게 물들여 짠 비단이라든지 새털로 짠 계 등 고급재료를 사용한 옷을 착용하는 등 국내와 국외의 복식 차이를 두어 보다 격식을 갖추고자 함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布의 재료로 사용된 직물이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三國志』의 기록을 살펴보면 마한 사람들은 이미 뽕나무를 심어 누에를 칠 줄 알았고, 마를 심어 옷감으로 만드는 제직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三國志』보다는 후대 편찬되기는 하였지만 동시대의 기록을 보이고 있는 『後漢書』와 『晉書』에서도 이와 동일한 기록이 있어 뛰어난 방직기술과 제직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마한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할 때 마 또는 견으로 옷감을 짜서 의복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포의 의복재료로 마와 견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연결할 수 있겠다.

특히 ‘大袂袍’라 하여 소매가 큰 형태를 기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대한국복식의 기본구조는 窄袖의 형태이다(金文子, 1994). 더구나 당시 중국에서도 大袖의 형태 역시 상층 계급의 전유물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대매포의 양식을 부여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크나큰 특징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포는 겹옷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여기서의 대매포는 일종의 袍를 말하며 안에 저고리를 착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가죽으로 된 신발을 신고, 모자를 쓴 구조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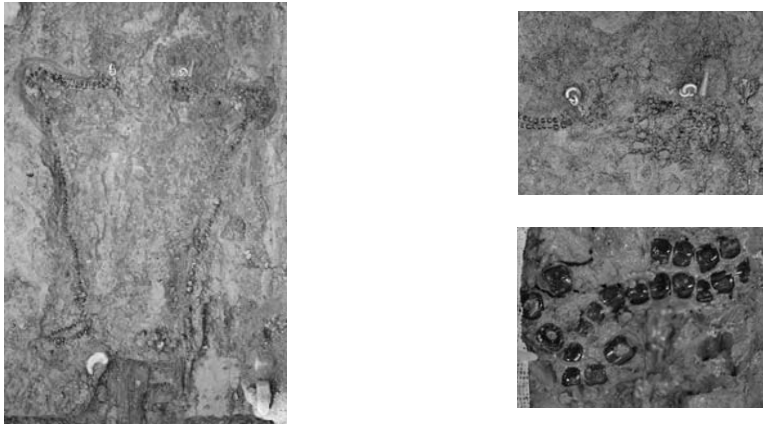
한편 繒繡錦罽라 기록하고 있듯이 견직물, 자

수, 비단, 계 등을 생산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문화를 지니고 있거나 중국과의 교역수단이 발달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와 국외의 복장에 대하여 각각 기록한 것으로 보아 출국 때 입은 옷은 일상복과는 다른 차림새일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백의의 백포는 바로 일상복이나 의례복으로 사용되며, 출국 때에는 증수금계로 장식을 한 옷을 입었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즉, 당시에 이미 일상복과 대외복의 이중구조가 존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대인의 경우 여우·살쥬이·원숭이·희거나 검은담비 가죽으로 만든 갓옷을 덧입고 다시 모자를 장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구체적인 모자의 형태는 제시되지 않아 알 수는 없으나 머리장식을 날카로운 병기에 묘사하고 있는 기록으로 보아 변과 유사한 구조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마한의 기사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삼국지에 기록된 내용을 보아도 마한의 기록이 부여의 기록보다 훨씬 구체적인 飾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가죽신과 모자 등 일반적인 飾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여의 기록에 반하여 마한의 기록은 훨씬 디테일한 모습까지 담겨 있다. 마한에서 구슬은 매우 귀한 재료로 옷장식이나 목걸이, 귀걸이 등 장신구에 사용되며 매우 귀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이의 내용은 『晉書』와 『後漢書』에 보다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의복재료와 장신구, 두발양식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三國志』뿐만 아니라 『晉書』와 『後漢書』 모두 ‘금과 은, 비단과 계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비단과 모직물을 귀하지 않았다는 점은 그만큼 옷감을 짜는 제직기술이 뛰어났음을 의미할 수 있겠다. 워낙 뛰어난 제직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지배계층, 귀족층이 주로 사용하는 고급직물인 금과 계를 생산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기록의 의미는 뛰어난 원재료 생산력과 제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직물생산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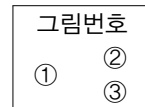
게다가 장식으로 瓔珠를 옷에 달고, 목걸이나 귀걸이, 머리장식에도 사용했다. 귀걸이 장식으로 사용하는데 그 길이가 길어 목까지 이르렀다



〈그림 1〉 수춘리 고분 출토 구슬 장식

(출처 : 公州 水村里古墳群 I. (2013).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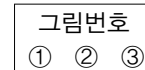
- ① 출토 전체 모습 ② 이식과 肩裝飾 세부
- ③ 수구 세부



〈그림 2〉 식옥

(출처: 금강. (2002). 국립공주박물관)

- ① 부여 연화리 ② 부여 송국리 ③ 대전 괴정동



고 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삼국지의 기록과 유사하지만 길이가 긴 형태의 귀걸이 장식과 구슬을 머리 장식에도 사용하였다는 것이 추가 기록되어 있다. 백제 역시 이와 유사한 내용이 실증되었는데 공주 수춘리 고분에 출토된 구슬장식을 살펴보면 옷의 깃에 꿰매어 치장하였으며 목과 귀, 머리장식까지 연결하여 장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뿐만 아니라 금강 유역인 부여 연화리·송국리, 대전시 괴정동 유적에서는 簪玉·小玉·曲玉 등 飾玉이 출토되었다(그림 2). 이들 식옥이 하나로 연결된 영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백제 고고자료의 출토는 문헌 자료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한다.

〈표 2〉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남자의 두발형태는 머리카락을 틀어 동그랗게 말아 묶고 상투를 드러내놓은 모습이다. 두발형태가 드러난 모습

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帽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대전 괴정동에서 출토된 청동기 유물(그림 3)에는 남자 2인이 발을 깔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양각된 남자의 모습에서 상투형의 발형이 확인된다.

부여와 마한의 기록으로 미루어 백제는 초기부터 이미 뛰어난 양잠기술과 제직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직조기술에 더하여 구슬 등을 이용하여 옷에 꿰어 차기도 하고 머리·귀·목 등에 장식하기도 하였다. 흰색을 숭상하여 의복은 흰 베로 만든 袍와 袴를 입었으며 소매는 통이 넓은 大袂를 착용하였다. 가죽이나 지푸라기를 재료로 한 履을 신었다. 袍를 착용하였다는 것은 袍 안에 襦를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襦와 袴, 袍를 착용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있다.

국내와 국외에 있을 때 복식에 구별을 두었다.



〈그림 3〉 대전 괴정동 유적 농경문청동기

(출처: 청동기시대 주거지집성2, (2008), 서경문화사)

국내에 있을 때에는 冠을 착용하였는지는 기록된 바 없어 알 수 없으나 외국에 나갈 때에는 금이나 은으로 장식한 冠을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三國志』 魏書 30 東夷傳 扶餘條). 국내와 국외의 복식에 구별을 둔 것으로 보아 일상복과 대례복의 이중구조가 존재하였음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또한 구슬, 금, 은 등으로 장식한 다양한 장신구가 존재하였을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고자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마한과 부여의 기록으로 백제 복식의 모습이 형성될 수 있는 그 기반을 살펴해보았다. 백제 복식의 모습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백제 이전부터 일체형이 아닌 분리형의 복식 구조를 나타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上下二部式의 소매가 큰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기에 가축신이나 짚신을 신었다. 또한 다양한 방직기술과 직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구슬로 의복과 머리에 치장을 하였던 마한 지역에 기반을 둔 백제 역시 구슬을 가지고 여러 복식품에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백제 복식의 성립과 발전

백제 복식 기록을 다룬 문헌에는 『三國史記』를 비롯하여 『魏書』·『梁書』·『南史』·『隋書』·『周書』·『北史』·『舊唐書』·『新唐書』가 있다. 또한 『梁職貢圖』 백제국사 기록에 백제사신복에 관한 내용이 있다. 이들의 사서는 대부분 5세기 이후부터 7세기까지의 기록을 다루고 있으며 『三國史記』의 기록은 3세기를 보이고 있다.

먼저 3세기의 기록을 다룬 『三國史記』의 내용을 살펴보면 관급에 따라 복색을 달리한 규정이

보이고 있다. 6품 이상은 紫色, 7품에서 11품까지는 緋色, 12품 이하는 青色의 服을 착용한 고이왕대 기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간적인 순차성과 함께 성립과정을 엿볼 수 있는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즉, 3세기에 이미 품계에 따른 의관제가 제정되어 시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며(盧重國, 1978), 색상의 차이를 두어 신분계층에 따른 차이는 마련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5세기의 기록으로 『魏書』에 ‘백제의 복식은 고구려와 略同하다.’는 내용이 있다. 복식의 유사성에 관하여 6세기의 『梁書』·『周書』·『隋書』·『南史』·『北史』와 7세기의 『舊唐書』·『新唐書』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백제 복식의 유사성에 관한 기록이 중국문헌에 5~7세기까지 3세기에 걸쳐 모두 있다는 것은 제 3자의 눈에서 보았을 때 구조적으로나 형태적으로 略同한 점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6세기의 기록에서 유사성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백제 복식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 기록들이 함께 보여 주목된다. 『梁書』와 『南史』에 백제 복식 구성품을 부르는 명칭이 기록되어 있는데, ‘帽을 冠이라 하고 襦를 複衫이라 하며, 袴를 褌이라 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명명하는 帽, 襦, 袴가 아닌 冠, 複衫, 褌으로 백제에서 부르는 고유용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6세기 후반에는 3세기의 기록을 다룬 『三國史記』의 紫·緋·靑服으로 관급을 나누던 형식이 보다 세분화되어 기록되고 있다. 의관제의 기록이 6세기에 집중되어 기록되었다는 점이 특기할만하다. 『周書』·『北史』·『隋書』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된다. 또한 『北史』·『隋書』의

기록은 『三國史記』에서 그대로 인용하여 전하고 있다.

의관제의 기록을 다룬 세 사서 가운데 『周書』와 『北史』에서는 '奈率이상은 冠에 銀花로 장식하고, 將德은 紫帶, 施德은 皂帶, 固德은 赤帶, 季德 靑帶, 對德·文愔은 黃帶, 武愔부터 剋虞까지는 모두 白帶를 들었다.'하여 관급에 따른 관 장식과 대색의 기록이 확인된다. 『隋書』는 『周書』·『北史』와 유사하기는 하나 관장식의 기록이 보이지 않고, 좌평부터 장덕까지 모두 紫帶를 매었다고 하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周書』·『北史』에서는 관장식의 기록이, 『隋書』에서는 대색의 기록이 구체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帶는 어떠한 형태로든 상의의 착용과 함께 수반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周書』·『北史』의 기록에서 帶는 장덕 이상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기보다는 생략된 것으로 보는 것이 무난하겠다. 뿐만 아니라 『周書』에는 기록이 되어 있으나 『隋書』에는 빠져 있는 은화관식 기록 역시 『周書』의 기록을 요약·정리하는 과정에서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6세기 후반에 기록된 의관제 내용은 '奈率이상은 銀花冠飾을, 佐平부터 將德은 紫帶, 施德은 皂帶, 固德은 赤帶, 季德은 靑帶, 對德·文愔은 黃帶, 武愔부터 剋虞까지는 白帶를 두른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7세기의 내용을 담고 있는 『舊唐書』와 『新唐書』에서도 의관제 기록이 보인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관인은 붉은색의 옷과 은화로 장식한 冠을 착용한다."고 하였다. 6품 이상의 관인은 冠에 은제로 구분되는 초화형의 관식으로 장식한다는 규정을 모두 일관된 체제로 기록하고 있는 『周書』·『北史』·『隋書』·『三國史記』와 달리 관등의 구별이 없이 기록되었다. 이는 1품부터 16품까지 모든 관인의 의복색이 붉은색을 띤다고 기록한 부분보다 은화관식에 착용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게다가 시기상으로 보았을 때에도 의관제 기록은 10세기 초에 편찬된 『舊唐書』보다 당의 貞觀年間(627~649)에 편찬된 『周書』·『隋書』·『北史』의 찬술시기가 더 빠르기 때문에 『周書』·『隋書』·『北史』가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보고 『舊唐書』와 『新唐書』의 기록은 앞서 찬술된 『周書』·『北史』·『隋書』의 내용이 축약되었다고 보아도 무

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여러 문헌에 기록된 의관제의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해보면 '奈率 이상은 紫服에 銀花冠飾, 將德부터 對德까지는 緋服, 文愔 이하는 靑服을 입는다. 여기에 佐平부터 將德은 紫帶, 施德은 皂帶, 固德은 赤帶, 季德은 靑帶, 對德·文愔은 黃帶, 武愔부터 剋虞까지는 白帶를 착용한다.'의 형태로 정리될 수 있다. 의관제가 제정되어 시행되는 전 과정에서 볼 때 시기적인 변천상을 살펴볼 수 있는데, 3세기에 紫·緋·靑의 색상으로 관급을 나누어 구별하였다. 복색으로 구별하는 형태는 보다 세분화되어 6세기 후반에는 6품 이상의 관직을 지닌 자는 은화관식을 착용하게 하여 가시적으로 신분차를 더욱 크게 나타낼 수 있게 하였다. 이의 형태는 대의 색에 차별을 둬으로써 더욱 세분화시켰다. 즉, 의관제는 복색 → 관식 → 대색 순의 차이를 두어 구체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舊唐書』와 『新唐書』에서는 앞서 살펴본 의관제 기록뿐만 아니라 왕의 복식에 대한 기록이 보여 주목된다. 두 문헌의 내용은 일치함을 보이고 있다. 다만 『舊唐書』의 기록은 먼저 服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며 후에 飾인 관 → 장식 → 대 → 신 순서로 설명하고 있다. 『新唐書』의 기록은 대 → 신 → 관 → 장식 순으로 설명하고 있어 순서상으로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왕은 소매가 큰 형태의 袍를 입고 푸른색의 비단 바지를 더하고 있다. 襦에 대한 설명은 없으나 袍를 착용하였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袍 안에 襦를 입었다고 추정할 수 있겠다. 즉, 바지와 襦 위에 袍를 착용하여 품위와 위엄을 가진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백제왕의 紫大袖袍의 소매너비는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추정하기 애매하지만 당시 수구나 바지통의 크기가 넓은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왕의 소매 폭은 그 너비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大袖의 특징은 『周書』와 『北史』에서도 나타나듯이 왕만이 가지는 전유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귀족 역시 大袖의 특징을 보였으나 그 너비는 왕과 동일한 폭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품계에 따라 복색이나 대색 등의 차이를 두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왕과 귀족, 평민 의복의 소매폭이나 바지폭 등은 그 너비에서도

차별을 두었을 가능성은 크기 때문이다. 폭의 차이로 구별을 두었다면 그 너비에 있어서는 왕 → 귀족 → 평민 순으로 차별을 두었다고 여겨진다.

袍 『釋名』에 이르기를 ‘袍는 발등에 이르는 길이를 나타낸다.’라고 하였다. 백제왕이 입은 袍의 길이는 발등에 이를 정도로 긴 형태라 여겨진다. 袍 밑에 바지를 입었다는 것으로 바지는 포 아래로 바지의 형태가 보일 정도라 생각된다. 긴 형태라고는 하지만 바닥에 끌리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靑錦袴는 바탕에 무늬가 새겨진 錦직물로 만든 바지를 뜻한다. 이러한 靑錦袴는 양직공도 백제사신이 착용하고 있는 바지와 같이 開口袴로 넓은 폭을 나타내며 밑단에 선 장식의 한 것이라 여겨진다. 가죽으로 만든 소재의 皮革帶를 여몄다. 이러한 피혁대는 흔히 大帶, 布帛帶를 사용하는 중국과는 달리 혁대를 사용하는 북방 유목문화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帶鉤와 함께 착용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烏韋履는 흑색의 가죽신을 뜻하며, 무령왕릉 출토 금동신발과 같은 형태로 추정할 수 있으며, 신 안에는 버선을 신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인의 복식 기록이 보인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서인은 緋色과 紫色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복색에 금지색을 둔 내용이 확인된다(『舊唐書』199 東夷列傳 149 百濟條; 『新唐書』220 列傳 145 百濟條). 일반민과 귀족층의 구분을 두어 더욱 신분상의 차별을 두고자 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과 같이 백제 복식의 시기별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백제 복식은 1~3세기 부여와 마한 복식 기록을 바탕으로 그 기원을 유추할 수 있으며, 3세기에 성립된 양상을 보인다. 이후 4~5세기를 지나 6세기에 복식의 틀이 완성되었다. 나아가 7세기의 기록으로 말미암아 백제 복식이 보다 발전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백제 복식이 시기별 변화 단계와 근거자료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백제 복식의 시기별 변화 양상

구분	시기	변화 양상	기록자료
1기	BC, 1-3세기	기원·발생	『三國志』·『後漢書』·『晉書』
2기	3세기	성립	『三國史記』
3기	6세기	완성	『梁書』·『周書』·『隋書』·『南史』·『北史』
4기	7세기	발전	『舊唐書』, 『新唐書』

IV. 결론

지금까지 백제 복식 관련 기록에 나타나는 과오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백제 복식의 시기별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문헌 기록의 자료 분석 결과 몇 가지 점검할 부분이 발견되었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후 수정·보완하였다. 검증된 기록을 바탕으로 백제 복식의 기원과 성립, 발전 등 변천에 관한 시기별 변화 양상을 찾을 수 있었다. 이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3세기 이전의 백제 복식은 부여와 마한의 기록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고 추정할 수 있었다. 마한과 부여의 출자로 형성된 백제는 지리적 위치나 기후, 생활 양식 등의 영향을 받아 복식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여겨지며, 백제 복식이 발생하는 요인에 이들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2. 문헌사료를 바탕으로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 시기적으로 점차 세분화되고 체계화된 복식의 변화상을 볼 수 있었다. 백제 복식은 4단계의 변화 양상이 발현되는데, 백제의 성립~3세기 이전의 1기, 3세기의 2기, 6세기의 3기, 7세기의 4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1기에서는 백제가 아닌 그 이전의 기록으로서 그 기원을 살필 수 있었다. 2기에서는 복색으로 신분상의 구별이 시작되는 성립 양상을 보이며, 6세기에 이르러 복식의 체계가 완성되었다. 7세기에는 백제 복식은 매우 구체적으로 정형화된 형태를 보이며 변화, 발전된 모습이 전개되었다. 이의 과정에서 복식이 사회적 신분 기준의 척도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3. 부여와 마한의 기록으로 유추하던 백제 초기 복식은 사회가 변화, 발전 되면서 독자적인 모습이 생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주변국가 복식과의 유사성과 관련된 내용과 반대되는 기록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기록은 백제 복식이 주변 국가와 다른 독자적인 모습을 보이며 차별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하였다. 초기에는 다른 나라와 유사한 복식형태를 보이다가 국가의 안정·발전 단계를 거치면서 복식 역시 독자적인 모습으로 변화·발전되었으며, 이러한 점이 복식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복식의 이러한 점이 백제 복식이 가진 고유성이자 정체성이다.
4. 삼국사기, 주서, 북사, 위서 등에 상이하게 기록된 의관제 내용을 바로 잡아 수정하였다. 같은 삼국사기의 기록 가운데 색복조의 기록이 신뢰성이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중국문헌의 기록을 비교, 분석하여 생략, 오기된 내용을 찾아 보완하였다. 3세기 백제 복식이 완성·발전되는 6~7세기에 의관제 역시 정비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그 과정에서 생략·오기된 내용이 있었으며, 이를 정리하면 3세기에 시작된 의관제는 6세기에 점차 세분화되어 신분 구별을 더욱 구체화시키고 정형화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백제 복식 기록 대부분이 대략적인 언급으로만 그치기 때문에 구체적인 복식의 구조나 형태를 살펴보기 쉽지 않은 점이 한계이다. 그러나 시기별로 형식적인 변화 양상을 확인한 점으로 미루어 문헌 사료에서 살펴보기 어려웠던 형태적인 특징에 있어서도 구조적인 변화 역시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점은 물질자료와의 상호보완적 연구를 바탕으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연구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자료에만 의존해서 단정하지 말고 기록자료 간의 총체적 검토와 비교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물질자료가 비록 많지 않더라도 기록 자료와 연결시켜 비교·

검토하는 상호보완적 연구를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영숙·이주영. (2004). 유물을 통해 본 백제 복식의 유형과 특징.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3), 565-574.
- 金東旭. (1979). *增補 韓國服飾史研究* 서울: 亞細亞文化史.
- 金文子. (1994). *韓國服飾文化의 源流* 서울: 民族文化社.
- 김수태. (2001). 百濟의 對外交涉權 掌握과 馬韓, *百濟研究*, 33, 23-36.
- 김영재. (2000). 王會圖에 나타난 우리나라 삼국사신의 복식. *한복문화*, 3, 17-25.
- 金元龍. (1967). *三國時代의 開始에 대한 一考察* 서울: 東亞文化.
- 盧重國. (1978). 百濟王室의 南遷과 支配勢力의 變遷. *韓國史論*, 4, 3-130.
- 盧重國. (1986). *百濟政治史研究* 서울: 一潮閣.
- 라선정. (2010). 百濟金銅大香爐 주악상 服飾을 통해 본 百濟 服飾의 獨自性. *역사와 담론*, 57, 241-273.
- 라선정. (2016). *百濟 服飾의 美와 문화콘텐츠 활용*.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마우리. (2010). *현대 축제의 백제복식 재현 양상과 원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선희. (2002). *한국 고대 복식* 서울: 지식산업사.
- 朴淳發. (1998). *百濟 國家의 形成研究*. 대전: 충남대학교출판부.
- 徐美英. (2004). *百濟 服飾의 研究* 忠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서미영, 박춘순. (2004). 백제금동대향로 주악상 복식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1), 61-70.
- 유송옥, 안소영. (2000). 金銅龍鳳凰萊山香爐에 나타난 백제 복식 고찰. *생활과학*, 3, 159-208.
- 李丙燾. (1959). *한국사고대편*.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柳喜卿. (1975). *한국복식사 연구* 서울: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 柳喜卿. (1984). 後綴小考. *服飾*, 8, 5-14.
- 柳喜卿, 김문자. (1998).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 李京子. (1983). *韓國服飾史論*. 서울: 일지사.
- 李如星. (1947). *朝鮮服飾考*. 白楊堂.
- 이은창. (1978). *韓國服飾의 역사*. 서울: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 李鐘旭. (1986). 百濟 初期史 研究史料의 性格. *百濟研究*, 17, 9-33.
- 이진민, 남윤자, 조우현. (2001). 王會圖와 蕃客入朝圖에 묘사된 삼국사신의 복식. *복식*, 51, 155-170.
- 전해중. (1980). *동이전의 문헌적 연구-위략·삼국지·후한서 동이 관계 기사의 검토*. 서울: 일조각.
- 정재운. (2007). *사료를 보니 백제가 보인다(국외편)*. 서울: 주류성.
- 정재운. (2008). 구태 시조설의 성립 배경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연구*, 51, 51-86.
- 홍정민, 김기엽. (2003). 百濟金銅大香爐에 나타난 복식에 관한 연구. *한복문화*, 6(2), 61-69.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공주시. (2013). *公州水村里古墳群 I*. 공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國史編纂委員會. (1987). *中國正史朝鮮傳譯註一*.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 韓國文化財保護協會. (1982). *韓國의服飾*. 서울: 韓國文化財保護協會.
- 今西龍 (1934). 百濟史講話 文教の朝鮮, 81, 23-37.
- 津田左右吉 (1924). *百濟に關する日本書紀の記載*. 東京 岩波書店
- 太田亮 (1928). *日本古代史新研究*. 東京 磯部甲陽堂 『三國史記』
- 『三國志』, 『後漢書』, 『晉書』
- 『魏書』, 『梁書』, 『南史』, 『周書』, 『北史』, 『隋書』, 『舊唐書』, 『新唐書』
- 『說文解字』, 『急就篇』, 『釋名』, 『中華古今注』